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SBS문화재단 공동기획 세미나

좋은 환경, 좋은 물, 좋은 도시

일시 / 2014년 11월 28일(금) 오후 2시 ~ 5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Local Hall

주관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Contents

21세기를 위한 물의 환경계획학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7
좋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문태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3
도랑 살리기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 오기현 SBS PD	55
좋은 도시를 위한 하천의 위상과 기능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57
도시설계, 물을 만나다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71

도시설계, 물을 만나다

김세훈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 변화에 민감한 물과 물에 민감한 현대사회
2. 블록버스터형 워터프런트 개발과 도박의 양면성
3. 정형화된 모델을 넘어서: 적응성(adaptability)을 향한 도시설계

1. 변화에 민감한 물과 물에 민감한 현대사회

도시 속 자연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반대로 자연 속에 위치하게 될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도시-자연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의 여러 도시계획가들에게 해묵은 난제를 던지곤 했다. 영국 의회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던 샬러리맨이자 동시에 근대 초 가장 영향력이 컸던 유토피아적 전원도시를 제안한 에버네즈 하워드(Ebenzer Howard)부터, 루돌프 스나이더(Rudolf Schindler)와 리처드 노이트라(Richard Neutra)와 같은 자연밀착형 건축가들에게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근대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나아가 최근 산기슭에 위치한 주택지 재생사업을 수립 중인 국내외 도시설계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도시-자연의 관계에 대한 계획가의 고민은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¹⁾

다양한 자연환경 중에서도 강과 하천, 그리고 범람원을 포함한 ‘물 환경’은 도시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의 도시·건축이론가 루이스 면포드가 지적하듯 “(도시의 성장에 여러 요소가 영향을 주었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량 물품을 수송할 수 있게 한 수로와 물길이 없었다면 전 세계 어떤 도시도 지금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Mumford, 1961, 71).” 강이나 바다, 그리고 물길을 끼고 그 입지가 정해진 도시들은 여러 가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는다. 해상 교역이 발달할 수 있는 지정학적 특성, 새로운 문물이 유입되는 문화적 접경지이자 물과 물의 경계라는 지형적 특성, 퇴적으로 인해 형성된 비옥한 농경지와 배후 정착지 같은 토지이용 특성이 여러 도시의 보편성을 뒷받침한다. 그에 반해 특수성은 보편성에 대한 문화적 대응의 차이와 우연적 사건의 발생이 누적되어 발생하게 된다. 같은 범람원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의 토지이용 패턴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특수한 산업이 출

1) 에버네즈 하워드의 유토피아 도시론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Fishman, Robert. 1982. *Urban utopias in the twentieth century: Ebenezer Howard, Frank Lloyd Wright, and Le Corbusier*. Cambridge, MA: MIT Press.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적 사고가 랜드스케이프 건축에 준 영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Frampton, Kenneth. 1991. “In search of the modern landscape.” In *Denatured visions: Landscape and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edited by Wrede, Stuart, and Adams, William Howard, 42-61.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현하거나 독특한 식민지 경험을 겪으며 이러한 특수성이 개별 도시에서 발현되기도 한다.

18-19세기 서구의 여러 도시는 산업화 과정에서 물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펄펄 끓는 엔진을 식히고, 기름때 묻은 기계 부품을 닦아내며, 심지어는 산업 폐기물과 오폐수를 처리할 때도 풍부한 물 환경이 필요했다. 1900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20개 대도시(대부분 산업도시)가 모두 주요 하천이나 수로를 끼고 발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후 수로-철도-고속도로가 이 도시의 물길을 따라 실타래처럼 형성되었고, 그 중 시카고나 디트로이트와 같은 도시들은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장소로 발돋움하게 된다 (Glaeser, 2011).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피해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베트남 출신 예술가 티파니 청(Tiffany Chung)은 전쟁이나 재해, 초대형 개발로 인한 트라우마가 한 지역의 도시 랜드스케이프를 변화시키는 모습에 대해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과연 우연일까? 그녀의 많은 작품, 이를테면 <2050년 대홍수(one giant great flood 2050)>, <물 프로젝트(The River Project)>, <두바이 1973>, <두바이 2020>, <히로시마> 등은 물 환경과 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1).

<그림 1> <Dubai 2020>, 티파니 청(Tiffany Ch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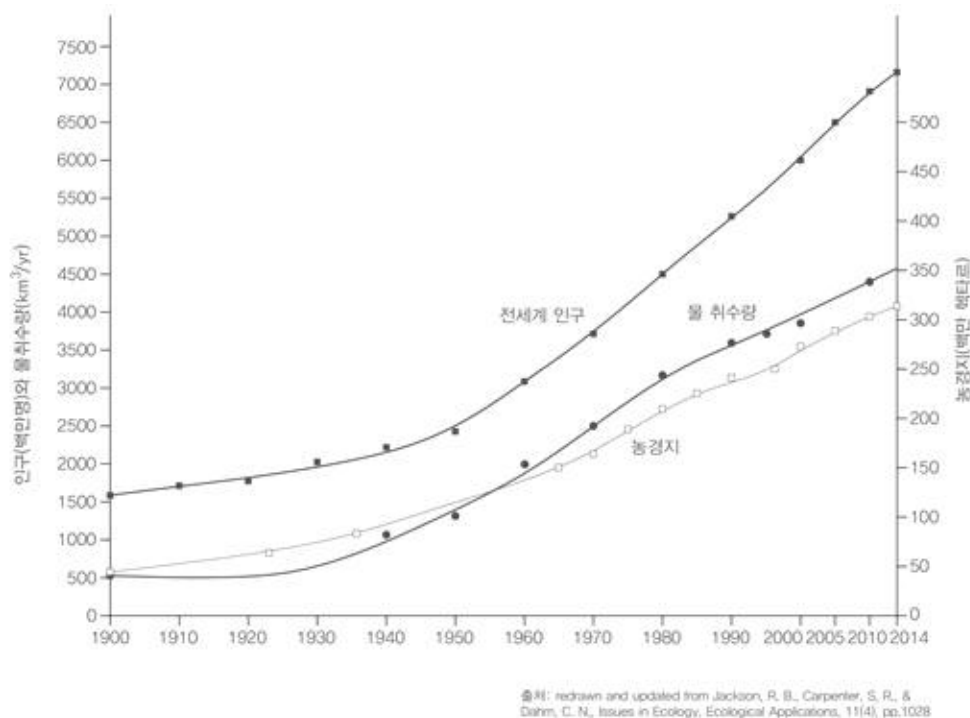


제2의 전성기, 물 환경과 성장-기계 패러다임

도시개발 측면에서 서구에서는 대략 1970-80년대,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늦은 1980-90년대에 물 환경과 그 주변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에 앞서 1950-60년대 전 세계 여러 도시는 복합적인 도시화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는 전후 도시복구와 주택공급, 베이비붐 세대의 탄생과 성장, 교외로의 무분별한 주거지 확산, 그리고 노

후화된 구도심과 전 세계적 탈산업화에 따른 문제가 포함된다. 비슷한 시기 전 세계 인구의 폭발적 증가,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지구상의 물에 대한 취수량도 급증했다(그림 2). 하지만 당시 인류는 산업/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만 물 환경에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할 무렵, 동아시아의 몇몇 나라를 제외한 전 지구적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라는 구호가 정치 무대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은 과거 경제호황기 과도한 개발을 규제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계(growth machine)로써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된다(Hall, 1988).

<그림 2> 전 세계 인구증가와 물 취수량의 변화, 1900-201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물 환경과 그 주변, 특히 도심부에서 가까운 워터프런트 지역은 경제성장의 엔진을 점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탈산업화 과정에서 방치된 산업유산, 각종 항만 시설, 재래시장과 현대적인 쇼핑몰, 호텔과 주거, 컨벤션 시설 등이 하나의 테마를 가진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도 이 당시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볼티모어의 하버플레이스(Harborplace, 1980년 개장)와 메릴랜드 과학전시관(Maryland Science Center, 1976년 개관), 그리고 1742년에 건립된 건축물을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1970년대 말 관광 명소화에 성공한 보스턴의 페뉴얼 홀(Faneuil Hall Marketplace) 등이 있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조성사업(The Hafencity project; 이범훈, 김경배, 2009)이 있으며, 보다 호화로운 스타 건축가들의 작품은 스페인 빌바오에서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걸쳐 본격화된 빌바오시 워터프런트 재개발에는 세계 최고의 스펙터클 중 하나로 손꼽히는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Guggenheim Museum Bilbao, 1997년 완공),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새의 뼈대와 외피를 연상시키게끔 설계한 손디카 빌바오 공항(Sondika Airport, Bilbao, 2000년 완공), 그리고 로버트 A.M. 스톤 등이 설계한 절충주의적 주비아르 쇼핑센터(Zubiarte Retail and Leisure Center, 2004년 완공) 등이 있다.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에이 만 친수 주거단지 개발 등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2000년대 싱가포르개발공사(URA)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최고급 호텔, 카지노, 미술관, 식물원을 포함한 복합용도개발이 이루어진 마리나 베이 지구(Marina Bay), 그리고 1998년까지 공항으로 이용되다가 최근 새로운 상업용도로 전용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 홍콩의 카이탁 공항 부지(Kai Tak Airport) 등이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들 도시에서도 스타 건축가의 작품이 물 환경 주변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예로 마리나 베이와 싱가포르강이 만나는 지점에 서서 세 개의 건물 매스와 이를 잇는 공중 캔틸레버 구조의 파격적인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마리나 베이 샌즈(건축가 Moshe Safdie)가 있다. 국내에서도 새로운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을 통해 물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이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하여 부산항 북항 재개발, 인천항 여객터미널 및 배후지 개발계획은 단순히 교통/물류의 수요 증가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물 환경 주변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침체된 도시 경제와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 전혀 새롭지 않은 ‘성장-기계 패러다임’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의 도시론(Water urbanism)과 국내 도시

도시개발을 통해 물 환경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도시적 스펙터클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국내 정치 무대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물 환경이 새로운 부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적 대상이라는 믿음과 함께, 물 환경 변화와 접근성 개선에 대한 실질적 수요와 대중적 기대감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서울시장 선거에 등장한 각종 공약에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민선 3기 시장에 출마한 이명박 후보는 당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당시 복원불가 입장을 내세운 김민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다음 민선 4기 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도심부로부터 한강에 대한 대대적인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당선 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오세훈 후보의 대항마로 출마했던 강금실 후보는 운하도시 서울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오세훈 시장의 하차 후 치러진 10·26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휴식과 쉼터가 될만한 곳을 다 파괴했다”고 평가했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며 출마했다.²⁾ 더욱 최근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 서울시장에 도전

2) 최병성. “나경원 후보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신곡-잠실 수중보 철거 없이는 강 못 살립니다.”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2011년 9월 30일 (<http://www.ohmynews.com/>).

장을 냈던 정몽준 후보는 서울의 항구 도시화와 한강 뱃길을 이용한 용산국제업무단지 추진 공약을 내걸었다. 장 누벨 같은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가 참여하기도 했던 한강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공모는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 등 3대 서울시장에 걸쳐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노들섬은 지금까지도 추진과 백지화를 소모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최장수 서울시 프로젝트 대상지 중 하나가 되었다.³⁾ 이와 함께 최근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국내 수변공간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예. 권영상, 조민선, 2010).

이러한 관심의 확산과 함께 최근 “물의 도시론(Water urbanism: Shannon and Meulder, 2013)” 혹은 “수력 문명(Hydraulic civilization)”이라는 말이 국내외 도시/환경 컨퍼런스와 워크샵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다.⁴⁾ 본 원고에서는 변화에 민감한 물 환경, 그리고 물에 민감한 현대도시라는 주제를 통해 물 환경 주변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도시개발의 한 단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규모 복합용도 개발과 도시하부구조 건설 프로젝트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앞으로 도시설계 차원에서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2. 블럭버스터형 워터프런트 개발과 도박의 양면성

초대형 스펙터클의 장소성과 도박적 블럭버스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1%가 연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수면 높이 기준 10m 이내의 저지대에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밀집해 있다 (Seto et al., 2011; Nicholls and Cazenave, 2010; Small and Nicholls, 2003). 물 환경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함께 물과 도심지 사이의 이러한 근접성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물 환경 주변의 도시경관과 체험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스펙터클의 장소성이 물 환경 주변에 등장하고 있다. 워터프런트의 스펙터클은 새로움을 통한 시각적 충격만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적, 심미적 역동성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으며, 이러한 감성을 알뜰한 성형수술로 포장하기보다 대중의 기억 속에 오래 동안 각인시킬 수 있는 장소 마케팅과 브랜딩이 동원된다. 나아가 이미 형성된 스펙터클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앞으로의 도시 모습과 변화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Dovey,

3) 노들섬 프로젝트의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현찬. 2013. 한강 예술섬 이후 현재까지의 노들섬 추진경과. 2013년 12월 20일 시민-전문가 공개토론회 자료집.

4) 물과 도시를 주제로 한 최근 국내외 컨퍼런스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4 워터프런트 도시디자인 포럼. 워터프런트 도시설계 및 경관설계: 전략과 과제. 인천, 한국, 2014년 12월 26일/4월 8일 (주최/주관: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The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2013. 인천, 한국, 2013년 11월 12-14일 (주최/주관: KAIA,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SWG 등); 도림천의 재발견. 서울, 한국, 2013년 10월 22일 (주최/주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Water and urban development paradigms: Towards an integration of engineering, design and management approaches. International Urban Water Conference, Heverlee, Belgium, 15-19 September, 2008 (Editors: Jan Feyen, Kelly Shannon & Matthew Neville);

2005). 잘 알려진 예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1971년 아랍에미리트연방(UAE)의 구성원이 된 두바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 최고의 마천루 중 하나인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 현재 계획 중인 전 세계 공항 중 가장 큰 규모의 <알막툼 국제공항(Al-Maktoum International Airport)>, 초대형 인공섬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와 <세계섬(“The World” islands)> 등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두바이에서는 매우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스펙터클의 장소성이 만들어졌다.

미국 조지아 대학 라모스(Stephen Ramos) 교수는 두바이에 대해 “후발주자의 장점(advantages to latecomer)”을 이용한 도박적 개발이라고 표현한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의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처음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도시성장 과정을 겪어야 했던 전통도시에 비해, 성장의 여러 단계를 한번에 뛰어넘어 이미 다른 곳에서 실험된 개발유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후발주자의 장점이다. 대신 두바이에서는 과거 모델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크기와 스펙터클을 더욱 증폭시켜서 차용(typological borrowing)했다 (Ramos, 2010). 두바이보다 더 후발주자인 쿠웨이트에서도 걸프만 주변에 <알 키란(Al Khiran) 신도시>를 포함한 다수의 신도시와 주거단지 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도시에서는 물 환경 이용의 사회적 측면이나 전통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한 점진적 개발 노선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도시의 사활을 걸고 도박성 짙은 블럭버스터형 개발을 감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걸프만의 지형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

블럭버스터형 개발에 있어서 동아시아 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완공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항으로 자리 잡은 <상하이 양산 심해항구>, 항공화물 기준 세계 세 번째 규모의 초대형 <푸둥 국제공항>의 건설과 확장, 그리고 홍콩 첵랍콕 공항과 공항철도, 그리고 고속도로와 통청 뉴타운을 포함한 10여 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도시하부구조 프로젝트인 <홍콩 에어포트 코어 프로그램(Airport Core Programme)> 등이 최근 물 환경 주변의 도시경관을 바꾸었다.⁵⁾ 최근 국내에서 논의 중인 인천 영종도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계획안과 소위 서해안 골드코스트 개발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안)을 주요 테마로 진행 중인 <시흥 배곧신도시> 프로젝트 등도 이러한 맥락을 공유하는 블럭버스터형 워터프린트 개발사업이다. 이를 통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크고 작은 아시아 도시들의 자신감 표출과 함께, 물 환경의 잠재적 가치를 적기에 실현해 도시 간 그리고 기업 간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절박한 도박의 심리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이중성

이러한 블럭버스터형 물 환경 개발의 이면에 흥미로운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이미 언급된 도박성이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내재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재정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규모와 시각적 스펙터클, 흔히 볼 수 없는 새로운 용도와 기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이러한 스펙터클을 방문자의 기억 속에 새

5) “The flow of things.” The Economist. July 12, 2014.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다음 책을 참조: Rowe, Peter G. 2011. Emergent architectural territories in East Asian cities. Barcelona: Birkhauser.

겨 넣는 여러 가지 장소마케팅 기법이 동원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도박성은 실은 전혀 새롭지 않은 모델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실제 도시개발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새롭거나 참신한 개발 방식보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비교적 익숙한 템플릿(파이낸싱, 개발규모, 용도와 프로그램, 건축 디자인과 입주 시설의 브랜드 포함)에 의존하려는 신중함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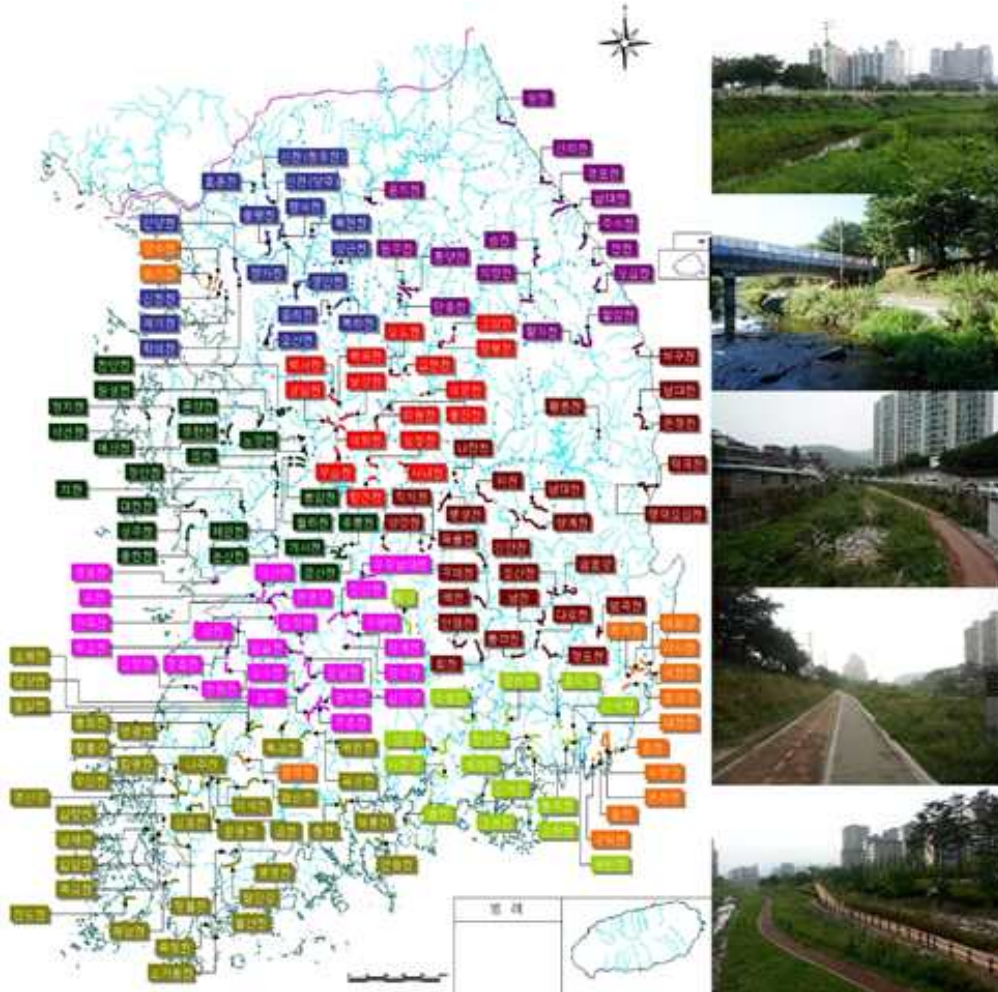
물론 도박성과 신중함 사이의 줄타기는 본질적으로 ‘고위험-고수익’ 구조인 도시개발의 특성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도심 속 물 환경 주변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갈등이나 소유권 문제가 집약적으로 몰려 있다. 더욱이 개발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부터 새로운 개발을 유도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으려는 정책까지 정부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도 많으며, 대규모 공공재원의 투입과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초래할 워터프런트 개발에서 신중함은 꼭 필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면성은 도시설계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발은 일견 기능적/미학적 새로움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실은 작위적인 유사-새로움을 반복 재현함으로써 지역성의 차이를 빠르게 지워 가고 있다. 즉, 도시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 이미지와 장소성 창출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은 새로운 디자인과 개발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다른 장소에서 검증이 완료된 개발 템플릿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 문맥이 전혀 다른 장소에 유사한 (가짜) 장소성이 반복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그 결과로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종종 공허하고 특색 없는 도시공간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2005년 복원 완료된 청계천은 복원과 함께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복원사업의 절충적 측면, 특히 생태와 역사복원 측면에서의 불완전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래도 이만큼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 측면에 우리 사회의 역량이 집결된 경우는 없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Rowe, Kim, and Jung, 2011). 하지만 이러한 논의 속에서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한 청계천 복원의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청계천이 이후 진행된 여러 하천 복원 프로젝트의 모델로 받아들여진 점이다.⁶⁾ 이를테면 환경부에서 주최한 <청계천+20> 사업과 그 확장판으로 전국 50여 곳 이상에서 진행 혹은 계획 중인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청계천의 모델을 반복적으로 차용했다 (그림 3). 물론 이미 검증된 복원 모델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청계천 모델의 모방과 차용은 전국에 걸쳐 소위 “청계천의 기적”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⁷⁾ 하지만 지나치게 정형화된 복원 모델의 남발은 서로 다른 지역의 고유한 풍경과 천변 공간의 특색 있는 사회적 이용행태를 “환원적 살풍경(tasteless landscape)”으로 치환한다. 이렇게 고유한 도시사회적, 생태적 맥락과 무관하게 환원적 자연을 재현하는 정책은 한 장소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오랜 시간 고민하는 도시/조경설계가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나아가 환원적 살풍경의 확산은 물 환경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역량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상상력 고갈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6) 청계천 모델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해 논의한 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명우. 하천경관과 하천복원. 하천과 문화 6, 3 (2010): 112-118.

7) 이러한 인식은 다음 워크숍을 통해 표현된 바 있다. 이만의(전 환경부 장관). 청계천+20 프로젝트 워크숍. 춘천시. 2010년 10월 25일; 하지만 이후 2014년 2월 개정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지침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생물서식처의 조성 및 과도한 친수시설 도입”한 정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3> 환경부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완료대상지, 2002-06
 (환경부, 2007. 생태하천 만들기 10년계획).



성공과 실패의 명암

블럭버스터형 개발과 복원이 반복되면서 한 도시에서의 성공 모델이 다른 도시에서의 실패 모델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 국경을 넘어 유사한 용도나 반복적인 테마의 연출, 그리고 동일한 수익창출 기법의 도입은 국제 자본, 방문자와 관광객, 기업의 유동성 측면에서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 같은 용도나 장소성을 두고 도시 간 혹은 지역 간 경쟁이 과도해져 한 장소에서의 성공이 다른 곳을 파멸로 이끈다. 더욱이 지나치게 경직된 개발 모델이 적용된 공간에서는 해당 모델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대중적 기호가 변화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작위적인 명소화를 통해 하나의 지역성을 상품화한 경우, 해당 도시는 상품화된 지역성 효과를 일정시간 독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고착된 지역성의 경제적 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해당 지역과 그 주변은 스스로 만든 지역성의 미로 속에 갇히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급속한 쇠퇴를 겪을 수 있다. 특히 규모가 큰 블럭버스터식 개발은 한 번 개발이 완료된 후 그 테마나 서

비스를 바꾸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하거나 개발 결과가 기대했던 성능을 보이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하다. 특히 이러한 개발에 대해 공공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하다. 이에 대해 멜버른 대학의 도시이론가 킴 도비(Kim Dovey)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전 세계 도시는 국제 자본을 유치해 워터프런트를 재활성화하려는 위험하고 상호모순적인 경쟁을 시작했다...일자리와 자본에 목마른 도시는 조금이라도 더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무모한 글로벌 할인전쟁(global discount war)에 뛰어들다...(결국 워터프런트) 민간협력 개발사업은 호텔, 컨벤션, 경기장 건립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고...(개발에 대한) 위험 부담은 정부가 지면서도 실질적인 개발 이익은 민간이 독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Dovey, 2005, 11).

3. 정형화된 모델을 넘어서: 적응성(adaptability)을 향한 도시설계

도시의 적응성

그렇다면 현대 도시에서 물 환경 주변의 도시공간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가? 나아가 지나치게 정형화된 블럭버스터형 개발과 정부 주도의 복원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설계적 접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미 고전이 된 <스펠츠 방파제 공원(Eastern Scheldt storm surge barrier)>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 네덜란드 그룹 West 8은 약 20여 년 전 로테르담 남서 측에 일종의 설치예술에 가까운 이 공원을 설계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상지 방파제 주변의 새들은 포식자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고자 본능적으로 보호색을 통한 위장을 선호한다.⁸⁾ 이를테면 먹이를 찾기 위해 혹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하얀 빛깔의 새는 하얀 배경의 장소를, 검은 빛깔의 새는 검은 배경의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설계자는 이러한 위장 행태를 스펠츠 공원의 설계에 이용했다.

설계자는 하얀색의 조개껍데기와 검은색의 홍합껍데기를 이용해 기하학적 띠 형태를 대상지의 지표면에 덮었다. 이러한 띠 형태에는 애써 낭만적으로 재현된 그림 같은 자연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그럴듯한 테마나 도발적인 디자인 컨셉도 없다. 실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새를 인공적으로 박제시키지 않고, 새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기대어 새와 새를 좋아하는 사람을 방파제로 조용하지만 아름답게 초대한다. 그리고 억지스럽게 테마화된 도시 속 자연을 통하지 않고서도 생태와 사람의 감동적인 상호작용을 잔잔하게 공간적으로 표현했다.

8) <http://www.west8.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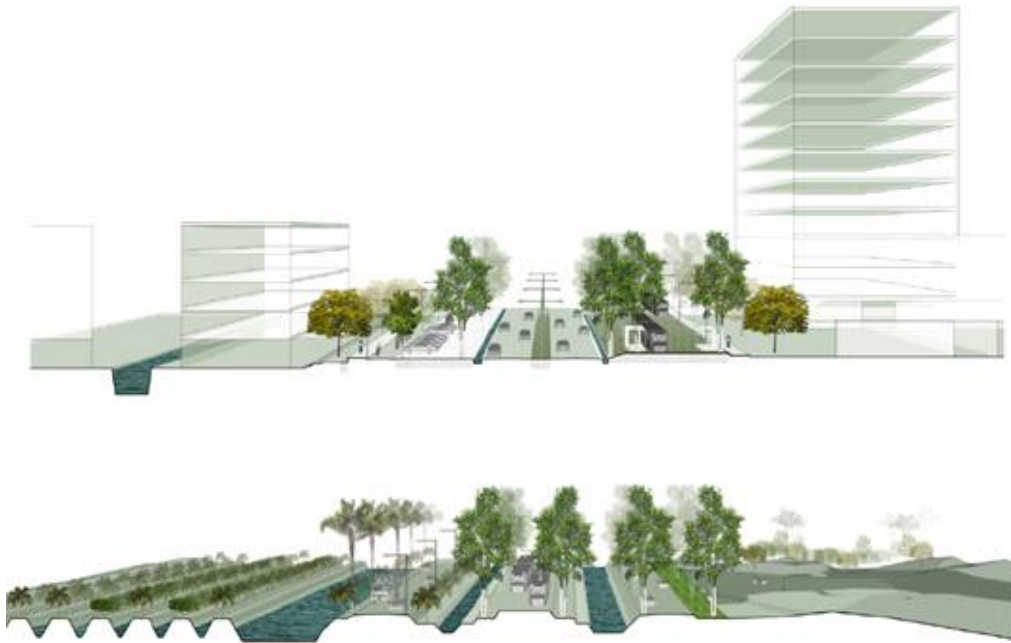
<그림 4> 스펠츠 방파제 공원(Eastern Scheldt storm surge barrier, West 8)



또 다른 사례로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인도차이나 반도 메콩강의 한 지류를 끼고 있는 베트남의 중규모 도시 캔소(Cần Thơ)에 제안된 도시설계안을 주목할 만하다. 오슬로 건축대학의 켈리 셰넌(Kelly Shannon) 교수 등은 잦은 범람과 해수면 상승 위협에 직접 노출된 캔소시 저지대에 대해 <도시 등뼈(Civic spine)>라 불리는 선형 도시하부구조 설계안을 제안했다(그림 5). 메콩델타지역은 광범위한 인공 수로와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높은 제방으로 인해 전 세계 델타지역 중 가장 인공적인 방법으로 물 환경이 조절되는 장소 중 하나이다. 그림에도 도시 전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이 매우 높고, 특히 가장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높은 인구밀도의 도심지가 흩어져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었다. 셰넌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한 마스터플랜을 제안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버스노선, 자전거도로, 주차장, 보행가도와 광장, 가로수와 선형의 경작지 같은 캔소시의 가장 기본적인 도시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공간을 ‘도시의 등뼈’로 재구성하고, 이 등뼈에 평행하게 서로 다른 크기의 다양한 물길과 도심지를 선형으로 재배치한다.

이러한 물길 사이에 위치한 도심지의 바닥 레벨은 추후 상승이 예상되는 수면 높이보다 조금씩 높게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상승하는 수면에 의해 잠식이 예상되는 저지대를 그렇지 않은 고지대로부터 공간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지대와 고지대를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엮는다. 그에 따라 강우 시 저지대와 수로에 물이 천천히 차오르고 시간에 따라 다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 자체가 캔소시 고유의 새로운 지역성을 형성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 공간은 향후 농업생산이나 도시관광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셰넌 교수는 이를 “지형적 상호작용(topographical interplays)”이라 표현했다 (Shannon and Meulder, 2013).

<그림 5> 베트남 칸소시 <도시 등뼈(Civic spine)> 설계안(Kelly Shannon 외)



위의 <스펠츠 방파제 공원>이나 칸소시 <도시 등뼈> 계획안에서는 공통으로 물 환경과 관련된 여러 수문학적, 사회적, 생태적 변화를 배제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도시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촉발하는 행태와 감정, 그리고 사회적 바램을 인정하고 나아가 물 환경 주변으로 초대한다. 이러한 받아들임과 초대의 공간은 본질적으로 과도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나 사회적 기호 변화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동요가 해당 도시를 파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는 장소성을 구성하는 고유한 특질 중 하나가 된다. 여기에서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서 검증 완료된 정형화된 모델은 필요하지 않다. 현재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를 일부만 바꾸면서도 해당 장소의 고유성을 시간의 변화 속에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공간을 소위 '적응성(adaptability)' 관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⁹⁾ 높은 적응성을 갖는 도시공간은 시간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요구 변화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적응성이 높은 도시는 앞서 논의한 블럭버스터형 개발 사례처럼 현재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변화 가능성과 토지이용의 다양성, 그리고 도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불확실성과 복합성을 받아들인다. 이는 도시를 중성화된 보편공간(universal space)으로 치환해 공간의 특수성을 처음부터 제거하거나 혹은 이동 가능한 텐트나 경량 구조물을 다수 만들어 임의적인 필요에 따라 물리적 환경의 제거와 변형이 쉽게

9) 적응성의 도시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도시학자의 저술에서 논의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 Moudon, Anne V. 1986. Built for Change: Neighborhood Architecture in San Francisco. Cambridge, MA: MIT Press

꿈 하자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앞으로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규모 도시개발이 국내외 물 환경 주변에 나타날 것이다. 나아가 아직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있는 북한, 특히 나선시와 같은 곳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중국의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이 교차함에 따라 다양한 국제적 합작개발의 실험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가시적인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과 함께 다른 한 편에서는 크고 작은 게릴라 같은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물 환경 주변의 도시 공간이 재편될 것이다. 최근 심리학 분야의 몇몇 연구에 따르면 물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경험은 경험 주체와 더 큰 자연환경과의 심리적 연결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그림 6).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집중력 상승이나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긍정적 감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¹⁰⁾ 이렇게 물 환경을 만지거나 공감각적으로 경험했을 때 갖게 되는 원초적인 감수성은 ‘성장-기계’의 패러다임과 항상 배타적이지만은 않다. 두 패러다임이 편안하게 만나 장소로 구현되는데 도시의 적응성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 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만한 적응성 있는 물 환경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음의 (심각하지 않은) 두 가지 기준을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물 환경 자체와 그 주변 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경제성 있는 용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수요와 사회적 활동,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가 오랜 시간 누적되고 기록되는 현상은 도시를 더욱 도시답게 만드는 중요한 특질이다. 따라서 물 환경을 포함한 도시공간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사회적 행태와 용도, 그리고 불특정다수의 감수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비결정적인 공간(indeterminate space)적 여백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조성 초기 단일한 목표에 따라 만들어진 블럭버스터형 개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하나의 테마 혹은 단일한 용도를 수행하게끔 만들어진 정형화된 도시는 그 테마나 용도의 가치가 추락하는 순간부터 유기되고 버려진다. 시간이 지나 이러한 쇠퇴과정 지속되면 해당 공간과 건물은 버려진 채 도시의 흉물로 남을 수 있다. 특히 물 환경과 관련된 공간이 하나의 테마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개발 초기의 상업적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과 관련하여 인공적으로 조작된 정체성이 경직되면 될수록 그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 구성원이나 용도 변화는 점차 배제되어 버린다. 따라서 지나치게 결정론적 공간보다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용도와 쓰임이 시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착할 수 있고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누적되어 더 큰 아름다운 전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끔 도시설계가 기여해야 한다.
- 물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 변화, 이를테면 집중호우, 홍수와 가뭄, 폭염,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등에 대응하는 공간적 안전망이 도시 내에 필요하다. 그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Bratman, Gregory N., J. Paul Hamilton, and Gretchen C. Daily. "The impacts of nature experience on human cognitive function and mental health."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249, 1 (2012): 118-136; Mayer, F. Stephan et al., "Why is nature beneficial? The role of connectedness to nature." *Environment and Behavior* 41, 5 (2009): 607-643.

리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공간은 비단 재해 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거주자와 방문자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최근 일련의 전 지구적 환경 변화는 이미 물에 대해 민감한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를 방치하거나 혹은 재해 발생 후 사후처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직된 도시관리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이 물 환경 주변에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공간은 재해 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공간은 주변 보행가로와 자전거도로, 그리고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미시적인 도시 조직의 일부로서 평소에도 도시민들에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사랑받는 일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림 6> 네덜란드 <모세의 다리(Moses Bridge)> (Ro&Ad)¹¹⁾



도시는 변화한다. 사회적 구성원이 변하고, 지역의 기후가 변하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대중의 기대도 변한다. 이러한 평범한 사실을 잊고 너무도 많은 수의 공간결정론적 프로젝트(determinate project)가 개발붐을 타고 물 환경 주변을 점유하게 되었다. 새로운 요구가 등장할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용도의 변화, 새로운 상권의 형성과 번성, 물리적 구조물의 증축과 변형이 가능할까? 변화가 완결된 모습이 아닌, 각양각색의 도시 조각을 잇대어 더 큰 도시의 모습을 그리는 패치워크(patchwork urbanism)로서의 도시설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적응성 있는 도시를 추구함으로써 환원론의 함정과 블랙버스터의 유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¹²⁾

11) 그림 출처: <http://www.smartplanet.com/blog/decoding-design/walking-through-water-on-the-moses-bridge/>

12) 결론 부분은 필자가 과거 <환경과조경> '아시아 디자인 리포트'에 투고했던 글 일부를 인용했다. 원고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세훈. "아시아 지역의 변화와 사회적 도시론." 월간 환경과조경, 2014년 3월호, pp. 65-71; 김세훈, 윤정원. "마스터플랜: 프놈펜 보앵각 호수와 다낭 호아안 지구." 월간 환경과조경, 2014년 3월호, pp. 82-87.

참고문헌

- Dovey, Kim. 2005. *Fluid city: Transforming Melbourne's urban waterfront*. New York: Routledge.
- Glaeser, Edward L. 2011. *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New York: Penguin Press.
- Hall, Peter. 1988. *Cities of tomorrow: An intellectual history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lackwell.
- Mumford, Lewis. 1961. *The city in history*. New York: A Harbinger Book.
- Nicholls, Robert J., and Anny Cazenave. "Sea-level rise and its impact on coastal zones." *Science* 328, 5985 (2010): 1517-1520.
- Ramos, Stephen. 2010. *Dubai amplified: The engineering of a port geography*. Burlington, VT: Ashgate Pub.
- Rowe, Peter G. 2011. *Emergent architectural territories in East Asian cities*. Barcelona: Birkhauser.
- Rowe, Peter G., Saehoon Kim, and Sanghoon Jung. 2011. *A city and its stream: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Seoul: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Seto, Karen C., et al. "A meta-analysis of global urban land expansion." *PLoS ONE* 6, 8 (2011): e23777.
- Shannon, Kelly and Bruno de Meulder. 2013. *Water urbanisms: East*. Zurich: Park Books.
- Small, Christopher, and Robert J. Nicholls. "A global analysis of human settlement in coastal zones." *Journal of Coastal Research* 19, 3 (2003): 584-599.
- 권영상, 조민선. 2010.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김세훈. 2014. "아시아 지역의 변화와 사회적 도시론." *월간 환경과조경*, 2014년 3월호, pp. 65-71.
- 김세훈, 윤정원. 2014. "마스터플랜: 프놈펜 보엥각 호수와 다낭 호아안 지구." *월간 환경과조경*, 2014년 3월호, pp. 82-87.
- 이범훈, 김경배. 2009. *하펜시티 수변공간의 도시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함부르크 하펜시티 프로젝트 사례 연구*. 2009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586-595.